



사라진 토종 투수... 평균자책 1점대 3명뿐

조상우(키움)·박준표(KIA)·윤대경(한화)만 잔물투 김광현도 떠나며 투수난 가중... 한국 야구는 어디로

현재 프로야구에서 뛰는 젊은 투수 중 앞으로 한국 야구를 믿고 맡길만한 확실한 선발 재목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유망주들의 성장은 더디고 1~2년 반짝 성적을 내는 게 전부다. 몇 년째 스타를 육성하지 못한 야구계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던지고 성적을 낸 투수는 사실상 김광현(현대) 투수인 스카디닐스), 양현종(KIA 타이거즈)이 마지막이다.

무섭게 커 가는 선수가 없어 한국 야구는 지난해까지 둘에게 크게 기대했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이어 김광현마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 진출함에 따라 '양현종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도쿄 올림픽이 1년 미뤄지는 등 국제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은 심각한 선수난에 시달리는 한국 야구에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더욱 암울한 점은 그나마 강점을 보이던 불펜 투수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간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9일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두 팀의 마무리

투수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무너졌다.

NC가 2-4로 패색이 짙던 9회말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먼저 두들겨 4-4 동점을 만들고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그러자 롯데가 연장 10회초 NC 소방수 원종현을 난타해 3점을 뽑아내고 7-5로 이겼다.

김원중과 원종현의 평균자책점은 각각 3.27, 4.61로 치솟았다.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는 이는 조상우(키움 히어로즈·1.71) 뿐이다.

일본과 미국을 거쳐 7년 만에 돌아온 전하의 오승환(삼성 라이온즈)도 3.19로 고전 중이다.

올 시즌 30경기 이상 등판한 구원 투수 중 홀드(세이브 요건)를 채운

중간 투수에게 주는 기록)를 전문으로 쌓는 선수들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자책점 1점대 투수는 조상우와 박준표(KIA 타이거즈·1.39), 윤대경(한화 이글스·1.42) 셋 밖에 없다.

구창모의 불꽃 레이스로 한동안 토종 투수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지만, 팔꿈치 통증 등의 이유로 구창모가 한 달 이상 이탈한 이래 다승, 평균자책점 등 주요 투수타이틀은 외국인 선수 전하로 돌변했다.

특히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를 대상으로 한 평균자책점 순위 상위 10명에는 임찬규(LG 트윈스·3.81)만이 8위로 토종의 체면을 세웠다.

선발에 이어 불펜으로 변신 투수난이 한국 야구의 체질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연합뉴스



10일 경남 합천군에서 열린 춘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 대회 결승전에서 서귀포고가 경기 부천FC 1995와의 연장 혈투 끝에 1-3으로 패하며 준우승 했다.

서귀포고 춘계고교축구연맹전 준우승

서귀포고등학교가 제56회 춘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귀포고는 10일 경남 합천군 용주2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경기 부천FC1995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3-1로 패했다.

서귀포고는 이날 경기에서는 송창화가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넣으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전반 27분 경기 부천 김규민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전에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연장전에서는 경기 부천FC1995 송지완이 내리 2골을 몰아친 반면 서귀포고는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대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춘계고교축구연맹전은 전국 24개팀이 참가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슈퍼맘의 포효 세리나 윌리엄스가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5회전(8강)에서 피통코바와의 3세트 2-1로 역전승하며 포효하고 있다. 4강전에 진출한 윌리엄스는 4년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2승만을 남겨뒀다. 연합뉴스

제주Utd, '선장 잃은' 대전에 설욕할까

올 시즌 대전과 두 차례 맞대결서 2연패 부진

프로축구 K리그2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2패의 굴욕을 안겨준 '선장 잃은' 대전 하나시티즌을 제물로 삼아 선두 굳히기에 도전한다.

제주는 13일 오후 4시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하나원큐 K리그2 2020 19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지난 18라운드까지 제주는 승점 35를 쌓아 '우승 경쟁자'인 2위 수원 FC(승점 33), 3위 대전(승점 30)을 따돌리고 삼일업만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K리그2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7라운드 체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18라운드로 시즌 일정의 3분의 2가 지났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재확신으로 자칫 리그가 중단될 때 '시즌 인정'의 마지막 선인 18라운드까지 치러지면서 제주-수원FC-대전은 '우승 후보 3강'은 19라운드부터 K리그2 자동 승격권을 주는 '선두 경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제주는 13일 홈에서 3위 대전을 상대로 선두 지키기에 도전한다.

공교롭게도 제주는 올해 대전에 유독 약했다. 제주는 18라운드까지 10개 팀 가운데 최소인 3패를 당했는데 그중 2패(2-3패·1-2패)를 대

전에 허용했다.

대전에 2패를 내준 제주는 올해 마지막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뿐이다. 특히 제주는 이번 대전전 승리가 절실하다.

승점 2차로 추격하는 수원FC의 19라운드 상대는 최근 5연패의 수렁에 빠진 부천이어서다.

수원FC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제주는 대전에 패하면 2위로 내려앉아야 하고, 비겨서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다득점에서 밀리는 터라 1위 자리 유지가 쉽지 않다.

일단 제주의 분위기는 좋다. 제주는 8월에 치른 6경기를 무패(4승 2무)로 장식했고, 남기일 감독은 8월의 감독상을 받았다.

제주는 8월 무패를 바탕으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4승 3무)다. 특히 7경기 동안 17골(7실점)을 몰아쳤다.

반면 대전은 황선홍 감독이 지난 8일 지휘봉을 내려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 무승(3무 1패)에 그치다가 18라운드에서 부천에 승리를 따내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사령탑 사퇴'로 선수단이 뒤숭숭해진 게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한 것도 걱정스럽다.

연합뉴스



'선행 왕' 추신수 MLB 클레멘테상 후보

구단 1명씩 추천해 30명 경합

통 큰 기부와 선행으로 사랑받는 추신수(38)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대표로 2020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 레이스에 참여한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를 벌이기 전 열린 이른바 '후보 추대식'에서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과 동료의 축하를 받았다. >>사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은 1972년 니카라과 지진 피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로베르토 클레멘테(1934~1972년)를 추모하는 뜻에서 제정된 상으로, 경

기장 안팎에서 선행으로 사회에 공헌한 선수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해마다 미국시간 9월 9일 로베르토 클레멘테 데이와 맞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저마다 클레멘테상 후보를 1명씩 발표한다. 추신수는 지난주 1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클레멘테 상의 텍사스 구단 후보로 지명됐다.

30명이 겨루는 클레멘테상의 최종 수상자는 록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4대 메이저리그 중계 방송사 대표, 클레멘테 유족, 팬 투표 등으로 최종 결정된다.

추신수는 미국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야구를 30년 이상 해왔는데 공동체를 위한 선행으로 받은 상이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주슬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슬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